

# 주요 은행 상반기 채용일정 '미정'

### 비대면채널 확대로 인력 수요 줄어... 디지털 분야 강화에 IT 인재 비중은 늘어날 듯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상반기 채용에 나선 것과 다르게 은행권은 채용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극적 채용 기조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국민·하나·우리 등 주요 은행 모두 아직 채용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다만 농협은행은 지난해 채용이 없었던 6급 신입사원을 지난해 모집, 이달 말 합격자를 발표한다. 채용 규모는 200명으로 지난 한 해 뽑은 160명보다 40명 많다.

지난해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상·하반기 공채를 실시한 신한은행도 구체적인 채용 계획이 없는 상태다. 신한은행은 매년 일반직 공채를 통해 300명 이상의 신입을 뽑는 은행권 채용 시장의 큰손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핀테크(기술+금융)와 모바일뱅킹 등 디지털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IT공학계열 인재를 30% 뽑았다.

채용 규모는 불투명하지만 이공계 선호는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달 초 취임한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디지털 혁신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리더로 손꼽힌다. 간담회에서도 "은행에서의 디지털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빠른 시일 내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채용 시스템의 변화도 예고했다. 그는 "유사한 '스펙'을 가진 사람을 몇 백명씩 뽑는 과거의 채용 방식이 디지털·글로벌 시대에 유의미할지 고민해서 변화를 시도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대출자 대상 대규모 공채에서 벗어나 수시·경력 채용이나 전문직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도 채용 일정은 정해진 바 없으나 상반기 공채는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하나는



자전거와 함께 봄 나들이 떠나요 15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스마트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선보이고 있다. '스마트 하이브리드' 자전거는 MTB와 로드형의 혼합 형태의 도심형 자전거로 편안한 자세의 라이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8만9,000원이다.

은행은 최근 3년간 하반기에 한 번 인력을 뽑았다. 지난해 대규모의 희망퇴직을 단행한 국민은행은 필요한 인력 수급 규모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채용된 신입사원들이 연수를 끝내고 지난 달 영업점 배치를 받았다"며 "채용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상반기 채용 가능성은 낮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일반직뿐 아니라 매년 상반기에 뽑는 개인서비스직군(창구 전담 직원)도 아직 채용계획이 미정

이다. 특성화고 채용은 이달부터 진행 중으로 경력단절 여성(파트타임)은 연중 상시 채용한다.

지난해 시중 은행들은 저금리 속에서도 대출 자산에 힘입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거뒀다. 그러나 비대면 채널 강화로 영업점이 줄어들며 추가채용의 유인이 크지 않은 모습이다.

다만 최근 들어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희망퇴직자도 늘면서 신입 채용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축소 및 통폐합으로 인력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몇년간 명예퇴직자와 희망퇴직자 등 나간 사람도 계속 늘었다"며 "올해 신규 채용 규모는 전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 "은행들도 인터넷은행 등의 영향으로 정보기술(IT) 디지털과 글로벌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이공계 출신들의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대선 예비 후보자, 카카오톡으로 만난다

### 후보자 대상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지원

제19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를 카카오톡으로 만나 볼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대선 예비 후보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는 카카오톡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카카오톡 기반의 플랫폼이다.

대선 예비 후보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개설해 정책, 공약, 활동, 일정 등을 모바일 콘텐츠로 제작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다. 카카오톡 메시지 내에는 외부 링크를 포함할 수 있어 사진, 영상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고, 카카오톡 TV와 연동해 실시간 영상을 중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플러스친구와 이용자가 일대일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도 있으며 플러스친구 혹은 후보자의 프로필, 주요 공약 등 다양한 정보를 담아 모바일 홈페이지로 활용 가능하다. 특정 이슈나 입장 등 후보자가 시급하게 알리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즉시 송부할 수 있는 신속성도 플러스친구의 장점이다.

대선 예비 후보자의 플러스친구

를 친구 추가한 카카오톡 이용자는 후보자의 콘텐츠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고, 이를 자신의 카카오톡 친구에게 전달 및 공유할 수 있다.

15일 오전 기준으로 현재 출마 선언 또는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친 10명의 대선 예비 후보자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개설한 상태다. 기존 카카오톡 오픈아이디를 이용하고 있던 후보자의 경우, 해당 오픈아이디는 플러스친구로 자동 전환된다.

후보자의 플러스친구를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려면 카카오톡 첫번째 탭(친구 리스트) 상단의 '친구/플러스친구' 칸에 후보자 이름을 검색하면 된다. 플러스친구의 카카오톡 메시지 공유를 통해 친구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카카오는 대선 예비 후보자의 플러스친구를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해 적극적인 활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다음 인물 검색 결과에 플러스친구 정보를 반영했으며, 향후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 카카오톡 채널 탭과 현재 준비 중인 다음(Daum) 대선 특집 페이지에도 후보자의 플러스친구 계정과 콘텐츠를 노출할 예정이다. /뉴시스

## 달러예금 '사상 최대' 美 금리인상에 환율 상승 기대

### 2월 달러화 예금 잔액 579억8000만 달러 전월 대비 27억5000만 달러 4.98% 증가

미국의 금리 인상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화 예금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2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국환은행의 달러화 예금 잔액은 579억8000만 달러(약 67조원)로 전월 대비 27억5000만 달러(4.98%) 증가했다.

달러화 예금 잔액은 2013년 359억 달러, 2014년 360억 달러, 2015년 472억5000만 달러, 2016년 496억6000만 달러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 1월(+55억7000만 달러)에 이어 두달째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들의 달러화 보유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개인의 달러화 예금은 3억

6000만 달러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기업의 달러화 예금은 23억9000만 달러나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들의 수출입 결제대금 예치액이 늘었고 일부 기업의 달러화 보유 경향이 커진 것도 달러화 예금 잔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전체적인 외화 예금 규모도 크게 늘었다. /뉴시스

2월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679억4000만 달러(약 79조원)로 전월 대비 32억9000만 달러(5.01%) 늘었다.

엔화(41억5000만 달러, +6.14%), 유로화(30억 달러, +10.29%), 파운드화 등 기타 통화(16억3000만 달러, +13.19%) 예금 잔액이 늘었고, 위안화(11억8000만 달러, -12.59%) 예금액은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유로화와 엔화예금은 수출입 결제대금과 증권사의 투자 자예탁금 예치 등으로 증가했지만 위안화예금은 대기업의 수입대금 결제 수요가 줄면서 감소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 다음달 25% 싼 기본형 실손보험 출시

### 5년간 보험료 인상 제한

다음 달 1일부터 판매되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은 5년간 보험료 인상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신상품은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 계약통계가 쌓일 때까지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월부터 기존의 표준화된 실손보험이 기본형과 3개의 특약으로 분리된다.

기본형은 현행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25% 저렴하다. 대신 도수치료나 수액주사 등의 주사제 치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치료를 보장받으려면 추가 보험료를 내고 별도의 특약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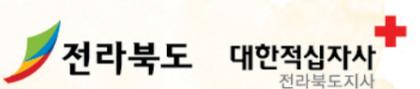
특약으로 들린 진료는 과잉진료 우려가 큰 항목으로 보험료 급등의 주범으로 꼽혔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백옥주사·마늘주사 같은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

(MRI) 등 3종으로 각각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당국은 의료소비를 막기 위해 특약 3종의 자기부담비율을 20%에서 30%로 올리고 보장 횟수(연 50회)와 누적 금액 한도(250만~350만원)도 설정했다. 특약 3가지에 모두 가입해도 기존 상품보다는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실손보험은 갱신형 상품이지만 이번 판매되는 상품은 신상품이어서 감독규정에 따라 5년간 보험료 조정에 제한을 받는다. 보험료를 산정의 토대가 되는 계약이 쌓여야만 합리적인 가격이 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국이 '합리적 시유'로 인정하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의료수급상승률 등의 범위 내 인상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가격이 동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